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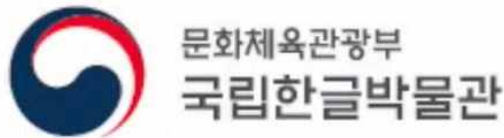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새로운 길을 나서는 2020 / 10월 4주차

■ 영상택배 시즌2 - 다섯 번째 이야기 "한글날 이야기"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언제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로 정해졌을까요? 이번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해드리는 <한글날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연유로 10월 9일이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기념일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장근범 개인전
이런 가족 같은 가족

2020. 10. 14. 수 - 11. 21. 토

여는시간 10:30~18:00 일. 월. 화 휴관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6-17(자동차길 16-5) 전화 063. 905. 2366

초기 홍보자료와 기간이 다릅니다.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

우리 연구원 장근범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서학동 사진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89-20)**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작업은 가족의 개별적 구성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과 가치를 이미지로 재현하고픈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21일 전에 전주에 오시면 서학동 사진관을 들리셔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진을 만나보시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매주 일,월,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회 관련 문의전화 / 063-905-2366**

■ 역사 속의 오늘

영웅, 민인의 별이 되다(1943. 10.25)

그의 고조부는 흥경래의 난에 연루되어 평안도 용강에서 살다 평양성 안으로 도주해 일가를 꾸렸다. 항쟁에 실패한 민인은 역도로 몰리기 마련. 그의 집안도 곤궁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고 그의 어머니는 고아로 외가에서 자라다가 혼인을 했다. 1868년 8월 27일 태어난 그는 영양실조와 산고로 일주일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마을을 다니면서 동냥젖을 먹여 그를 키웠으나 아홉 살 때 아버지마저 죽었다. 그는 가난한 숙부 집에서 자랐으며 조금 커서는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머슴살이를 했다.

1882년, 그의 나이 열다섯일 때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군졸모집 광고를 보고 나이 두 살을 올려 속이고 지원해 합격했다. 그는 평양진위대 나팔수로 복무하다가 도망쳐 나왔다. 그 뒤 황해도 수안군 수구면의 조지청(造紙廳)에서 일꾼 노릇을 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고 종처럼 혹사시켰다. 결국 그는 주인을 때려눕히고 이곳도 빠져 나왔다. 이후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에 있는 신계사를 찾아갔다. 이 절에서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아 중이 되었다. 탈영에 폭행범으로 쫓기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러 사연을 겪으며 그의 나이 서른 줄에 넘어 산속에서 포수생활을 하며 지내던 사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했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산중생활을 청산하고 일본 타도에 앞장서기로 작정했다. 훗날 노년에 옛 일을 회고하면서 "일찍이 갑오년 농민이 폐정개혁과 외세척결을 기치로 기의(起義)할 때 나는 처음으로 반일 반봉건 의식이 싹터 여기에 뛰어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해도 일대에서 항일의병 활동을 전개하던 중 동료를 잃고 패퇴한 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신계사에 있을 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가 헤어진 여인을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태중에 있던 아들을 낳아 홀로 키우고 있었다. 7년 만에 재회한 부인과 7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년에 이 기간을 전 생애에 있어 가장 안정되고 평온한 생활이었다고 회고했다.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이 이어지며 의병이 일어나자 그 역시 다시 반일투쟁에 나섰다. 그는 태양욱(太陽郁), 차도선(車道善) 등과 함께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포수들을 집결시켰다. 이들은 후치령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군 국경수비대를 공격하고 우편마차를 탈취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군을 유인하여 섬멸하기도 하고 군용화물차를 습격하기도 하면서 갑산, 해산진, 삼수, 풍산 일대를 교란했다. 이렇게 해서 의병 1천여 명을 모아 군량도감 등 부대의 진용을 갖추고 격문 포고문을 돌리면서 약 3년 동안 게릴라 전법으로 37회의 전투를 벌였다.

함께 의병활동을 벌이던 차도선이 귀순공작에 넘어가고 태양욱은 함정에 걸려 체포당하고 말았다. 일제는 그의 가족을 잡아들여 귀순을 종용했다. 부인에게 귀순을 강요하고 남편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라고 압박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다가 고문을 받아 죽었다. 그의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했다.

연해주와 조중 국경을 넘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간도지역에서 의병과 포수를 모아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1920년 6월 7일 저 유명한 봉오동 전투의 승전고를 울리고 뒤이어 청산리 전투에서도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나 일제는 훈춘사건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토벌전을 벌였다. 그는 경신대참변 이후 근거지를 러시아 자유시로 옮겼으나 자유시참변으로 다시금 시련을 맞이한다.

지천명을 훌쩍 넘긴 외로운 이방인이었지만 시련에 굴하지 않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고려혁명군 대표로 참석해 레닌을 만나기도 했지만 레닌 정부의 한인무장 병력 통제에 의해 부대원 50여명과 농업조합을 건설하고 소비에트정부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내 독립투쟁의 물적 토대를 갖추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집단 이주 정책'으로 인해 8,000여km가 떨어진 지금의 카자흐스탄지역으로 이주 당하게 되었다. 갓난아이도 안다는 독립영웅이었던 그는 칠십이 넘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소련 침공에 맞서 입대를 자원하기도 했었고 함께 이주한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했다.

빈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개인적 불행을 민족모순과 봉건모순 타파를 위해 항일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성과를 남긴 전설의 영웅 홍범도가 1943년 10월25일 민인들을 비추는 별이 되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신비한 돌구멍 절 <팔공산 중암암> 네 번째 이야기 “건들바위와 만년송, 삼인암”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건들바위 | 한쪽을 손가락으로 톡 치면 영락없이 좌우로 끄덕거릴 것처럼 생긴 반원형의 바위다.

대략 3km의 거리를 오르내리는 1시간 반 정도의 산행에 차츰 피가 날 즈음이면 건들바위가 버티고 선 봉우리가 홀연 나타난다. 귀통이가 둥글게 닳은 네모난 바윗돌 사이로 길이 난 곳이다. 돌 틈을 비집고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봉우리에 오르려면, 먼저 두루뭉술한 두부모 형상의 바윗돌 세개가 포개져 너댓 길 높이로 치솟은 관문을 감돌아야 한다. 짧은 일생을 이리저리 내달으며 명리名利나 좇던 인간 존재가 무거운 버팀 앞에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위용을 지닌 근엄한 수문장 바위다. 단 한 걸음의 내딛음도 없이 인연에 따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을 바위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인생이 영원을 마주한다.

사실 이 봉우리를 건들바위라고 부르지만, 이곳에서 건들바위는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건너편 묘봉에서 내다보이는데, 중암암 위쪽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가 그것이다. '건달바위'라고도 불리는 이 바위는 본래 중암암의 지붕 바로 위에서 위태롭게 건들거리던 바위였다고 한다. 그런데 옛날 언젠가 이곳 주지스님의 귀에 건들바위가 까닥대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깜짝 놀란 주지스님이 곧바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자 건들바위는 얼른 위쪽으로 몇걸음 물러나 지금의 안전한 자리로 옮겨 갔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만년송 | 고행의 상징인가? 득도의 경지인가? 길고 긴 세월을 건너온 만년송이 바위틈에 어렵사리 뿌리를 내렸다.

건달바위 옆으로 칼질한 두부모처럼 생긴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위쪽으로 거대한 바위에 오르면 '만년송' 한 그루가 홀연 나타난다. 이 소나무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어난 자신의 몸무게를 이리저리 가늠하면서 바위의 표면과 틈바구니에 어렵사리 뿌리를 내린 고행의 만년송이다. 휘몰아치는 산꼭대기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한겨울의 눈보라에도 생명의 끈을 한순간이나마 놓치지 않은 거룩한 소나무다. 그 앞에는 호위병 역할을 하는 양, 두 개의 바위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천년 동안 달님을 연모했기에 만년송의 줄기는 차올랐다 이울기를 반복했다. 별빛의 소리를 듣느라 솔잎은 짧고 뾰족한 침이 되어 안테나로 펼쳐졌다. 지금도 타는 갈증에 시달리는가? 스쳐가는 바람에도 온몸을 떨며 가슴에 남모를 나이테를 화인火印으로 새기는 중이다. 잠시나마 벗해 주고 싶은 마음에 얼마쯤 앓았을까? 문득 박인환 시인의 시 한 대목이 생각난다. 그렇다.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나는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만년송을 찾은' 고작 한 마리 산짐승일밖에 없다.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천년 소나무는 말없이 영겁의 세월을 수놓는다. 여전히 세상을 굽어보면서 말이다. 인간들의 세상은 저 멀리 아득하다.



삼인암 | 네모난 도장 세 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것처럼 생긴 모양에서 얻은 이름이다. 앞쪽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절벽이다.

침묵의 바윗돌 사이를 여기저기 드나들다 보면 남쪽의 양지바른 곳에 네모난 도장 세 개가 차례로 늘어선 것처럼 생긴 길쭉한 바윗덩어리를 만나게 된다. 김유신 장군의 전설이 어린 '삼인암三印岩'이다. 한 귀퉁이의 편안한 위치에 삼인암이라고 쓰인 세 글자가 단정한 예서의 암각으로 남았다.



삼인암에 새겨진 글자 | 누가 쓴 글씨일까? 정성스런 마음 하나가 눈길을 끈다.

신라 시대 화랑의 후예였던 김유신은 지금의 중암암 자리에 깃들여 살았다고 한다. 그는 날마다 이곳 삼인암에 올라 도를 닦으며 마침내 출중한 무술을 익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예를 배우는가?”하고 유신에게 묻자, 유신은 “산신에게서 배웁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전설이다.

김부식이 찬한『삼국사기』를 들추면 뒤쪽에 도합 10권으로 구성된 열전列傳이 나온다. 이 가운데「김유신전」은 모두 3권으로 이루어졌다.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유독 많은 양이다.

「김유신전」의 첫머리 부분에는 진평왕 재위 28년이 되던 서기 611년에 17살의 소년 김유신이 중악中嶽의 석굴石窟에 들어가 날마다 목욕재계하고 삼국통일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어느 날 밤에 난승難勝이라는 신인이 나타나 그에게 비법을 전해 주었다는 대강의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삼국사기』에 표현된 중악은 혹시 오늘날 건물바위로 불리는 중암이며, 석굴은 돌구멍절이 자리 잡은 돌구멍이 아닐까?

다시 설명한다면, 팔공산은 분명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때에 지어진 이름이다. 그리고 김유신이 살던 당시 신라의 영토로 미루어 팔공산은 신라의 한 중앙에 해당한다. 게다가 중암암이라는 이름 가운데의 중암과 「김유신전」의 중악은 분명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 또한 중암암에는 김유신 장군이 마셨다는 '장군수'가 전설과 함께 지금까지 전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중악이 팔공산에 자리한 중암의 다른 표현이라면, 「김유신전」에 나오는 석굴은 자연스레 돌구멍 절의 돌구멍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선의 이름은 바로 난승이다.

그런데 중암암 외에도 가까운 무학산의 불굴사 홍주암과 경주 단석산의 신선사 역시 「김유신전」에 나오는 중악의 석굴에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내 추론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삼인암은 종내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른다. 흰 구름이 떠간다.

건들바위 봉우리는 참으로 야무지고 단단한 바윗돌로만 이루어졌다. 세찬 기가 뭉쳐 만들어진 바윗돌이다. 상서로운 기운이 봉우리를 감싸고 돈다. 덩달아 내 몸과 마음도 한층 가뜩해진다.

다음 회는 <팔공산 중암암> 다섯 번째 이야기 “극락굴과 천왕문”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